

“수난 이대”:

전쟁의 傷痕 속에서 피어나는 휴머니즘, 그 불안감

강영택 (동북고)

“아들이 돌아온다. 아들 진수가 살아서 돌아온다. 아무개는 전사했다는 통지가 왔고, 아무개 마무개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통 소식이 없는데, 우리 진수는 살아서 오늘 돌아오는 것이다.”

생각할수록 어긋바람이 날 일이었다. 그래 그런지 몰라도, 박만도는 여느때 같으면 아무래도 한두 군데 앉아 쉬어야 넘어설 수 있는 용머리재를 단숨에 올라채고 만 것이다. 가슴이 펠럭거리고 허벅지가 빠근했다. 그러나 그는 고갯마루에서도 쉴 생각을 하지 않았다. 들 건너 멀리 바라보이는 정거장에서 연기가 물씬물씬 피어 오르며, 삐익- 하고 기적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아들이 타고 내려올 기차는 점심때가 가까워서야 도착한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었다. 해가 이제 겨우 산등성이 위로 한 뼘 가량 떠올랐으니, 오정이 되려면 아직 차례 먼 것이다. 그러나 그는 공연히 마음이 바뻐다.

.... (박만도가 징용에 끌려가 한쪽 팔을 잃게 된 과거에 대한 회상이 나온다. 전장에서 돌아온 아들 진수는 한 다리를 잃은 상태였고, 이를 발견한 아버지 만도는 경악한다.)....

개천 독에 이르렀다. 외나무다리가 놓여 있는 시냇물인 것이다. 진수는 딱 걱정이 되었다. 물은 그렇게 깊은 것 같지 않지만, 밑바닥이 모래밭이어서 지팡이를 짚고 건너기가 만만할 것 같지 않기 때문이었다. 외나무다리 위로는 도저히 건너갈 재주가 없고.....

진수는 하는 수 없이 독에 뛰어들고 앉아서 바짓가랑이를 걷어 올리기 시작했다. 만도는 잠시 멀뚱이 서서 아들의 하는 양을 내려다보고 있다가, “진수야, 그만두고 자아 업자.” 하는 것이었다. “업고 건르면 일이 다 되는 거 아니가? 자아, 이거 받아라.” 고등어 묶음을 진수 앞으로 민다. “...” 진수는 펍 난처해 하면서 못 이기는 듯이 그것을 받아 들었다. 만도는 등어리를 아들 앞으로 갖다 대고 하나밖에 없는 팔을 뒤로 버쩍 내밀며, “자아, 어서!” 진수는 지팡이와 고등어를 각각 한 손에 쥐고, 아버지의 등어리에 가서 슬거머니 업혔다. 만도는 팔뚝을 뒤로 돌려서 아들의 하나뿐인 다리를 꼭 안았다. 그리고 “팔로 내 목을 감아야 될 끼다.” 하는 것이었다. 진수는 몹시 황송한 듯 한 쪽 눈을 찌 감으면서 고등어와 지팡이를 든 두 팔로 아버지의 굵은 목줄기를 부둥켜안았다. 만도는 아랫배에 힘을 주며 ‘꽝!’ 하고 일어났다. 아랫도리가 약간 후들거렸으나 걸어갈 만은 하였다. 외나무 다리 위로 조심조심 발을 내디디며 만도는 속으로 ‘인제 새과랑게 젊은 놈이 벌써 이게 무슨 꼴이고? 세상을 잘못 타고나서 진수 니 신세도 참 똥이다. 똥.’ 이런 소리를 주워섬겼고, 아버지의 등에 업힌 진수는 곧장 미안스러운 얼굴을 하며, “나꺼정 이렇게 되다니, 아버지도 참 복도 더럽게 업지. 차라리 내가 죽어버렸더라면 나왔을 낀데....” 하고 중얼거렸다.

만도는 아직 술기가 약간 있었으나, 용케 몸을 가누며, 아들을 업고, 외나무 다리를 무사히 건너가는 것이었다. 눈앞에 우뚝 솟은 용머리재가 이 광경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휴머니즘이라는 이름의 찬란함

이 작품은 우리나라 전후 소설 작가군의 한 사람인 하근찬의 1957년 신춘문에 당선작이다. 하근찬은 <수난 이대>를 시작으로 주로 가난한 농촌을 배경으로 민족의 비극과 사회 병리 현상을 묘사한 작품들을 썼다. 여기서 농촌은 폐쇄된 자연이 아니고, 한국의 역사적 상황에 연관된 현실인 점을 인식하고 있다. 그의 서술방법은 單文주의, 간결한 문체, 보여주기(showing) 기법, 작중 인물에 대한 작가적 개입의 철저한 배제 등을 특징으로 한다. 단편으로 <낙뢰>, <나룻배 이야기>, <흰 종이 수염>과 장편인 <야호(夜壺)>, <산에 들에> 등이 있다.

한 소설 작품을 이해함에 있어 그 작품에 나타나고 있는 갈등을 분석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갈등이란 작중 인물이 겪게되는 내적, 외적 대립 관계로서의 정서나 욕망, 이념 등이 분열되고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을 말한다. 갈등은 소설의 본질적 요소이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소설을 外的 自我의 介入이 없는 自我와 世界의 葛藤構造라 정의했다.

갈등의 유형에는 개인과 개인의 갈등, 등장 인물 내면의 갈등, 개인과 사회의 갈등, 개인과 운명의 갈등 등이 있다. 이 소설에는 그 갈등의 양상이 단순한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그다지 간단하지 않은 않다. 먼저 표면적인 갈등 양상은 아버지 만도와 아들 진수라는 인물간의 갈등으로 나타난다. 정거장에서 불구가 되어 나타난 진수를 목도한 만도의 첫 반응은 아들에 대한 분노였다. 이 두 인물 간의 갈등은 아무말 없이 길을 걷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갈등은 오래가지 못한다. 길을 가다 주막에 들른 만도가 주모에게 진수를 위하여 국수를 시키는 장면에서 이들의 갈등이 해소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수 한 그릇만 말아 주소, 굵배기로 잘 줌..... 참기름도 치소. 알았능꼬?”

인물간의 갈등이 이 작품에서 본질적인 갈등이 아님은 쉽게 발견하게 된다.

만도는 일제시대 징용에 끌려가 한쪽 팔을 잃었다. 아들 진수는 6.25 사변으로 인해 다리를 잃고 돌아왔다. 이 두 인물을 상처입게 한 시대 현실과 이 소설의 주인공들은 서로 대립적 관계에 놓여있다. 이 작품에서의 실질적인 갈등은 바로 인물과 사회(혹 역사)와의 갈등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일제 침략과 6.25는 우리 역사에 있어 가장 비극적 사건이었다. 작가는 농촌의 순박한 두父子가 겪는 역사와의 갈등을 통해 이 땅의 현대사가 경험한 역사적 비극을 그릴려고 하였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과연 이 작품에서 나타나는 본질적인 갈등이 개인과 사회와의 갈등인가에 대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그들에게 결코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준 사회나 역사에 대한 깊은 고찰이나 비판을 별로 보이지않는다. 어떻게 다쳤는냐는 물음에 진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전쟁하다가 이래 안 됐습니까? 수루탄 쪼가리에 맞았심더.” “이래 가지고 나 우째 살까 싶습니더”

그리고 만도가 아들 진수를 보면서 증얼거리는 말이다.

‘인제 새파랗게 젊은 놈이 벌써 이게 무슨 꼴이고? 세상을 잘못 타고나서 진수 니 신세도 참 똥이다. 똥.’

작품의 인물들은 자신들에게 큰 상처를 입힌 이 사회가 자신들과 대립적 관계에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자신들에 깊은 상처를 준 힘에 대해 분노하거나 그 힘의 본질을 탐구하고 비판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이 모든 고통스러운 현실을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작품의 본질적 갈등이라했던 개인과 사회와의 갈등 역시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면에서 이 작품은 뒤에서 다룰 최인훈의 ‘광장’과 좋은 대비가 된다. 광장의 주인공 이명준은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우리 민족의 비극적 역사의 산물이라 보고 그 실체를 분석한다. 이명준은 자신과의 대립적 위치에 이데올로기란 것을 두고 이에 대해 끊임없이 비판적 입장을 유지한다. 개인과 사회의 갈등이 뚜렷한 예가 되는 것이다.

이에 비해 결국 수난이대는 비극적 역사가 남겨 놓은 고통스러운 삶을 자신들에게 주어진 운명이라 받아들이고, 그 힘겨운 운명을 개체적 인간들의 생존에의 본능적 의지로 감내해내고 있는 작품으로 분석해야 할 것이다.

이제 위에서 언급한 갈등 구조를 토대로 이 작품의 주제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자. 이 작품에서 작가의 주제의식이 분명히 나타나는 부분은 앞에 적어 놓은 소설의 마지막 장면이다. 이 작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재 중에 ‘외나무 다리’가 있다. 외나무 다리는 작가가 의도적으로 설정해 놓은 중요한 배경이 된다. 시냇물을 건너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외나무 다리를 반드시 지나가야 한다. 만도는 이 다리를 건널 때마다 항상 조심스러워 한다.

*고기 뼈를 향해서 마른 코를 팽팽 풀어 던지고, 그는 외나무 다리를 조심하
달는 것이었다.
그는 이 외나무 다리를 꼭 조심하는 것이다.*

한번은 만도가 술이 취해 혼자 이 다리를 건너다가 떨어져 물에 빠진 적도 있었다. 이제는 아들 진수도 이 다리를 건너가야 된다. 한 다리를 잃은 상태로 지팡이를 짚고서, ‘외나무 다리’는 단순한 배경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살아가야 하는 ‘인생살이’의 상징인 것이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되는 삶인 것이다. 다리가 튼튼한 석조 교량이 아닌 위험스러운 외나무 다리이듯 이 소설의 인물들이 살아야 하는 삶은 늘상 위태롭고 후미진 旅程과 같다. 이런 인생을 전쟁으로 한 쪽 팔을 잃은 아버지와 한 다리를 잃은 아들이 살아가야 한다. 정상인 사람도 살아가기 힘든 가난과 시련의 시대를 정상적이지 못한 두父子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작가는 우리 민족이 직면한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 만도와 진수父子가 하나가 되어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는 감동적인 장면으로 답변을 대신하고 있다.

*진수는 지팡이와 고등어를 각각 한 손에 쥐고, 아버지의 등어리를 가서 슬그머니
업혔다. 만도는 팔뚝을 뒤로 돌려서 아들의 하나뿐인 다리를 꼭 안았다.
만도는 아직 술기가 약간 있었으나, 용케 몸을 가누며, 아들을 업고, 외나무 다
리를 무사히 건너가는 것이었다. 눈 앞에 우뚝 솟은 용머리재가 이 광경을 가만
히 내려다 보고 있었다.*

작가는 상처 입은 사람들이 서로 감싸고 도우면서 비극의 상처와 고통, 우리

민족의 수난사를 극복해 가는 과정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 갖는 사랑과 의지의 찬란함이 더없이 누부시게 빛난다.

휴머니즘, 그 후의 불안감

작가는 이 작품에서 연약한 개인을 희생시키는 역사의 포악성에 대해 고발하거나 저항하려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그저 시대의 거대한 힘에 상처 입은 개인들의 이야기에 주목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인간의 행복이란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요, 역사와의 관계성 위에 존재함을 일깨워 준다. 그리고 작가가 강조하고자 한 것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곳곳이 헤쳐 나가는 우리 민족의 강인한 생명력과 사랑의 힘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인간에게 고통이란 소박한 감상 이상이다. 고통의 현실이 아무리 극심하다 하더라도 그 현상 자체에 머물러서는 해결의 가능성이 없다. 고통을 가져오게 한 원인이 밝혀져야 한다. 그런데 수난시대에는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이 없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만도와 진수의 몸의 일부를 앗아간 것은 2차 세계대전과 6.25 전쟁이란 사실 뿐이다. 두 인물 모두 전쟁으로 인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 그럼에도 작가는 전쟁에 대해 어떠한 평가도 내리지 않는다.

전쟁이란 인간의 원래적 모습이 아니다. 전쟁은 인간의 貪慾의 다른 이름이다. 2차 세계대전이나 6.25 전쟁 모두 집단화된 인간의 욕심이 胚胎시킨 反인간적 狂亂이었다. 비록 허울 좋은 이데올로기의 이름으로 치장했다 하더라도.

인간성을 상실한 인간들의 정당화된 집단 폭력은 수많은 연약한 개인들에게 극심한 상실감을 안겨 주었다. 박만도, 박진수는 인간이 지닌 포악성에 의해 희생된 불쌍한 개인의 이름들이다.

팔과 다리를 잃은 두父子가 서로 업고 업히어서 외나무 다리를 건넜다고 그 후의 길을 계속하여 걸어갈 수 있을까? 상처 입은 두 사람의 화합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만큼의 힘을 가질 수 있을까? 그 둘의 이해와 사랑이 개인이 각각 갖고 있는 깊은 상처를 어느 정도 치유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疑問文은 어쩌면 이 작품이 갖는 한계의 연장은 아닐지.

휴머니즘이란 말이 주는 매력 뒤에 남게되는 왜지모를 불안감을 이 작품은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만도, 진수父子가 겪는 고통은 그들 개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역사의 산물이었다. 달리 말하면 인간이 지닌 墮落함의 상처인 것이다. 인간 타락의 시작은 하나님과 함께 있음에서 떨어짐 부터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결과로 생겨난 아픔은 하나님과 분리된 채 치유되지 않는다.

휴머니즘이 갖는 한계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더해져야 한다.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서 인간들의 화합과 사랑은 온전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인간의 상실감과

상실한 인간성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이다.

수난이대는 이러한 한계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귀중한 깨달음을 주고 있다. 소설은 우리에게 우리 삶의 목표 중 하나인 이웃 사랑의 방법을 일러준다. 이웃 사람들의 내면 세계를 소설만큼 정확하게 알려 주는 것이 또 있겠는가? 수난이대는 정상적이지 못한 한 가족의 아픔이 우리 모두의 것임을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전쟁이 끝난 지 여러해가 되었지만 아직 전쟁의 후유증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많다. 만도와 진수가 팔과 다리가 잘린 채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 함께 생각해 볼 문제들

1. 이 소설 이후의 이야기를 각자 구성하여 서로 말해 보자.
2. 휴머니즘과 복음과의 관계에 대해 토의해 보자.
3. 지금도 전쟁(6.25, 월남전 등)으로 인해 고통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나누어 보자.